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	
		배포일자	2021년 5월 25일(화) 총 4매		
담당 부서	도로과	담당자	• 보행환경개선팀장 박승호 ☎440-3786 • 담당자 조두현 ☎440-3787	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거미줄 같은 공중케이블 ‘이제는 묶어서 하나로’
 - 원도심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실시 -
 - 총 202억 원 사업비 확보 전통신장, 어린이공원 등 18개 구역 추진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원도심 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,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·통신선(이하 공중케이블)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.

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돼 왔으며, 지난해까지 총 1,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4,708본의 전주와 케이블 1,555km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.

올해는 202억 원의 사업비(과기정통부 159억 원, 한전 43억 원)를 확보해 18개 구역의 전주 11,678본 및 케이블 280km를 정비할 예정이며, 12월까지 정비가 진행된다.

대상지역은 중구 을목동 일원, 동구 송림시장 일원, 남동구 인수초·새말초 일원, 계양구 효성마을 도시재생지역 등 재래시장·초등학교 주변

위주로 총 18개 구역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평가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,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당초 정부에서 정한 통신분야 기준금액 125억 원 보다 많은 159억을 확보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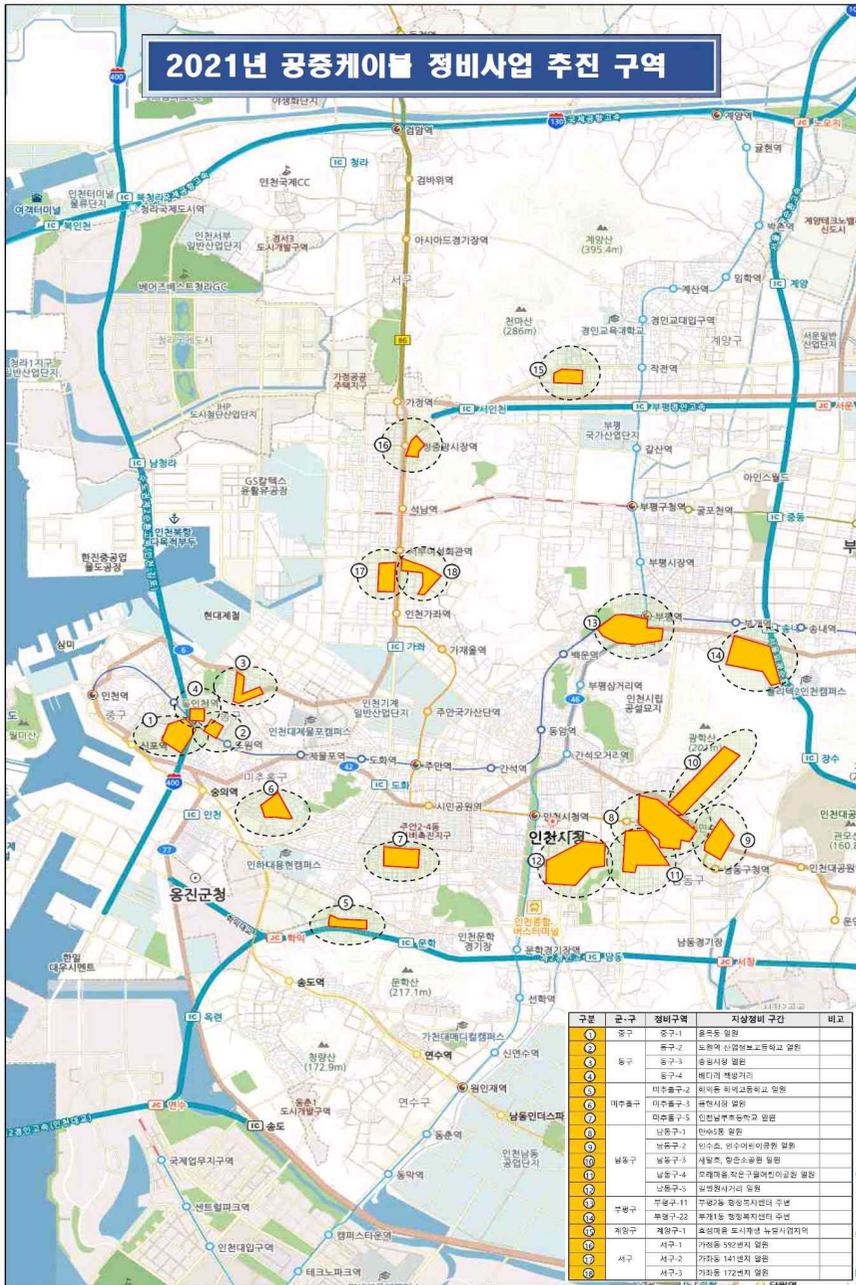
이번 사업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케이블을 정리해, 정주여건 개선과 전통신장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원도심 곳곳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중 지중화가 불가하거나 우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정리(지상정비)하는 사업으로, 주요 정비대상은 공중에 뒤엉킨 케이블과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,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선·사선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케이블 등이다.

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“공중케이블 정비는 교통 및 보행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감전 사고의 위험을 해소하며, 원도심 미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” 며 “시민 안전보장과 함께 원도심 정비 사업의 일환인 만큼 주무부처와 지속적 협의 및 정비 필요지역 사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확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2021년 선정 사업 위치도 및 현황

<2021년 선정 사업 위치도 및 현황>



구분	군·구	정비구역	지상정비 구간	비고
1	중구	중구-1	율목동 일원	
2	동구	동구-2	도원역 산업정보고등학교 일원	
3		동구-3	송림시장 일원	
4		동구-4	배다리 책방거리	
5	미추홀구	미추홀구-2	학익동 학익고등학교 일원	
6		미추홀구-3	용현시장 일원	
7		미추홀구-5	인천남부초등학교 일원	
8	남동구	남동구-1	만수5동 일원	
9		남동구-2	인수초, 인수어린이공원 일원	
10		남동구-3	새말초, 향촌소공원 일원	
11		남동구-4	모래마을, 작은구월어린이공원 일원	
12		남동구-5	길병원사거리 일원	
13	부평구	부평구-11	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	
14		부평구-22	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	
15	계양구	계양구-1	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	
16	서구	서구-1	가정동 592번지 일원	
17		서구-2	가좌동 141번지 일원	
18		서구-3	가좌동 172번지 일원	